

진흥회 동정

'97年度 제 1 차 理事會 개최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1월 29일 무역클럽 51층에서 재적임원 23명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7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진흥회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하고 '96년도 수지결산(안)과 '97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 비상근 임원 선임 및 해임(안), 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통상산업부 서사현 생활공업국장을 초청,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무역수지 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97년도 정책방향을 듣는 기회도 가졌다.

또한, 정보화 시대를 맞아 진흥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개최하였다.

1997년도 진흥회 예산규모는 지난해 보다 8% 증가한 1,310백만원으로 특히, 금년에는 기술개발 지원사업, 국제화사업 및 업계에 대한 서비스강화 사업등을 역점 추진키로 하고 사업비를 지난해 보다 24% 증액 책정하였다.

진흥회, 할당관세 추천기관 지정

한국전기공업진흥회가 통상산업부로부터 비금속의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일명 SF6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따라서, 앞으로 전기공업진흥회를 통해 비금속의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을 실수요자나 생산자, 무역업자 및 단체들이 수입할 경우, 그동안 8%까지 부과되던 관세율을 4%까지 인하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전기공업진흥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당해 물품에 한해 2백58메트릭톤의 수량까지 기본세율을 4%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추천할 방침이다.

또 6개월마다 운영한 결과에 따라 신청물량이 쇠도할시는 증액요청을 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공업진흥회는 이번 비금속의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따라 해당업체들이 총 50만불 가량의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생산성본부 품질인증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기공업진흥회가 중전기 업계의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진흥회는 최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격경쟁 보다도 품질로의 승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업계의 품질경영체제 조기 정착을 위해 ISO 9000 품질인증 획득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ISO 14000 계열규격에 대한 인증 획득을 장려하고 업계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한국생산성본부 품질인증원과 품질시스템 인증업무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따라, 앞으로 진흥회가 추천한 회사가 생산성본부 품질인증원과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할 경

우 인증비용중 본 심사비용의 10% 상당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인증에 관련된 기술지도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진흥회는 인증원과 각종 정보·기술자료 등을 무료 교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수된 정보를 업계에 전달하게 되며 인증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 경험 및 인적자원을 상호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진흥회는 이번 업무협정 체결을 계기로 신개발 제품에 대한 단체규격 표준화 대상품목 조사등 중전기 업계의 품질경영에 대한 지원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촉진 대책회의 개최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1월 24일 진흥회 회의실에서 통상산업부 관계관, 중전기 주요 수출업체 및 단체 임·직원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전기산업 수출촉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 중전기 산업의 무역환경과 국내 중전기 산업의 수출경쟁력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 파악과 수출촉진 대책방안을 협의하였다.

진흥회는 '96년도 우리나라 중전기 산업의 수출규모가 17억 \$ 수준으로 전년대비 약 21% 정

도 증가하고 '97년도에도 동남아 국가의 전원개발 사업 및 건설경기 붐으로 인한 전력기자재 수입증가 등 수출호조 요인이 많아 금년대비 약 15% 정도 증가한 20억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업체에서도 수출유망지역에 대한 과감한 진출과 경쟁력 강화로 신규 수요 창출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중전기기류는 대부분 중량물로서 운송비용 등 물류비 비중이 크고, 이중 시험에 따른 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제조원가가 상승하여 경쟁력 저하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내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수출가

격 하락 및 수출시장이 문란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및 진흥회에서 업계의 수출업무와 관련하여 애로요인을 수시로 파악, 개선해 주고 해외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한편, 진흥회는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동남아시아 등 수출유망지역에 금년에도 수출촉진단을 파견하고 특히, 수출유망지역의 전력청 구매 관계자를

직접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갖는 것을 비롯 수출 증대를 위해 진흥회내에 정부, 진흥회, 업계로 구성된 「수출촉진 대책반」을 설치하여 매일 수출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과 해외동향 파악, 무역수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상설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電機産業 인터넷 서비스 실시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전기산업은 물론 우리나라 중전기기 업체의 기업 이미지와 제품 홍보등 각종 정보를 해외 바이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기산업 홈 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이 홈 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게 될 정보 서비스는 진흥회 일반현황, 주요사업 소개 및 회원사 현황, 생산제품별 업체 현황과 전기산업 현황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번 홈 페이지 개설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세계적 추세이고 인터넷 홈 페이지에 대한 바이어

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홍보 효과가 커질 것임에 따라 앞으로 중전기기 업체도 인터넷을 수출 판로 개척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 업계의 수출확대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개설하게 된 것이다.

한편, 진흥회가 홈 페이지 전문 제작사인 ‘혁신전자’를 통해 제작한 KOEMA의 웹 사이트 주소는 <http://WWW.KOEMA.ORG>이다.

또한, 진흥회에서는 개별 업체별 홍보 내용을 상세히 홍보하기 위하여 회원사를 중심으로 참여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고 있다.

